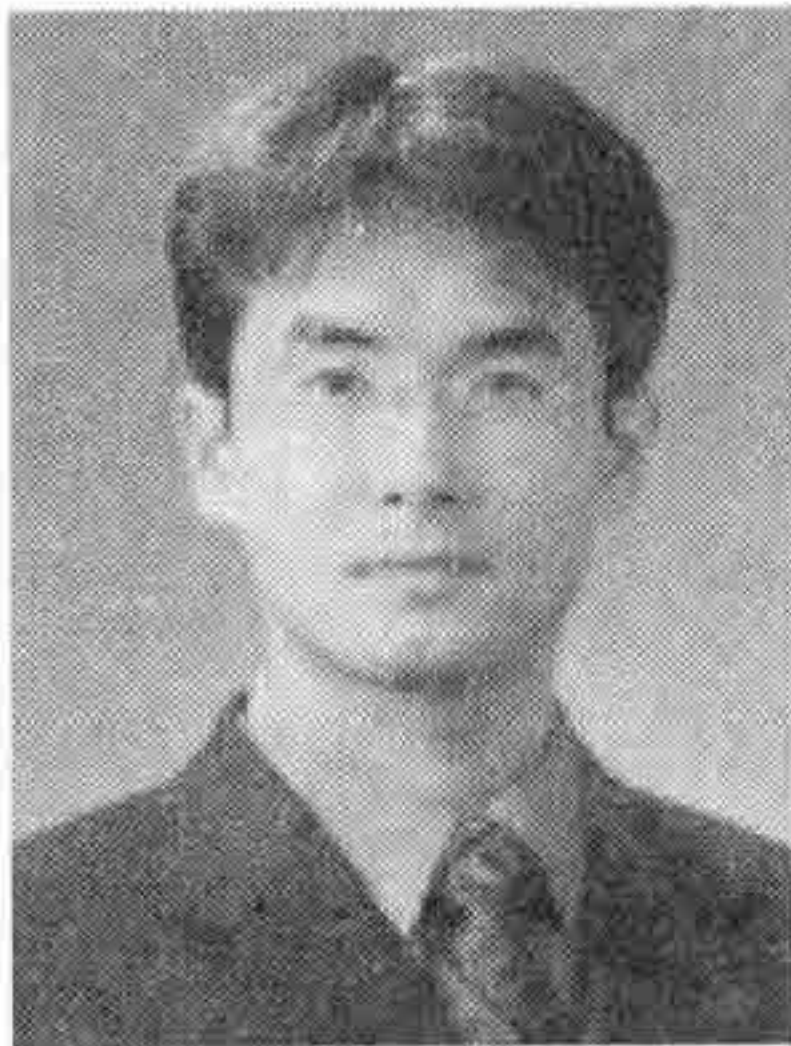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황 및 향후 방향

박상민

국립암센터 삶의 질 향상연구과



우 리나라의 의학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암 치료 성적은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나 보호자의 만족도나 환자의 고통

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부분의 의료수가가 투약이나 처치, 수술과 같은 행위 위주로 책정되어 있는 반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전인적으로 돌보아 주는 케어(care)에 대해서는 적절한 수가체계가 없기 때문이다. 집에 방치되어 있는 말기암환자들은 극심한 통증을 견디지 못하여 자주 응급실을 방문하게 되며,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기를 원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 암환자에서 입원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10%도 줄어들게 되어, 많은 말기암환자들이 3차 병원의 급성기 병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말기암환자들의 경우에도 의료시스템 체계가 케어보다는 치료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급성기 질환 환자들에 비해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심한 통증과 증상 속에 고통 받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말기암환자와 가족들이 오랜 투병생활을 거치면서 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된다. 국립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매년 약 3만여 가구가 저축의 대부분을 상실하게 되고, 1만여가구

는 치료비용 때문에 더 싼 집으로 이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3만여가구는 환자를 간병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게 된다. 이와 같이 말기암환자와 가족은 통증이나 증상조절과 같은 의료서비스 뿐만 아니라, 심리사회 및 영적 지지, 경제적 지원과 같은 복지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높기 때문에 독특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가 필요하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죽음을 삶의 일부이며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해하고 말기 환자에게 통증 및 증상의 적절한 조절과 같은 의료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임종 연장의 회피, 환자의 자율성 존중, 가족과의 관계 강화, 심리 사회적 지지, 영적 및 존재적 신념 등 인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요소들을 강조하며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인적인 의료이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관련하여 비교해야 할 다른 보건의료제도로는 노인요양제도와 장기요양제도가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노인요양제도는 주로 간병서비스 제공과 같은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말기암환자를 돌보기 위해서는 간병서비스의 지원도 필요하다. 하지만, 진행암환자의 70%, 말기암환자의 80-90%정도가 통증으로 고통 받고 있으며, 이러한 통증은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으면 90%이상에서 조절이 가능하다. 즉, 말기암환자는 간병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 서비스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노인요양제도와는 다른 보건의료

체계가 필요하다. 최근에 노인요양병원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장기요양제도는 주로 노인성 만성병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병원에 비해서 의사나 간호사 인력기준이 느슨하다. 즉 적은 수의 의료인력으로 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말기암환자에게 양질의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급성기 병상에 입원해 있는 일반 환자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의료 인력이 필요하다. 우선 급성기 병상에 입원해 있는 일반 환자들은 평균 9개 미만의 증상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말기암환자들은 13개 이상의 증상을 가지고 있으며, 증상의 중증도도 심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위한 간호 인력 기준은 일반 의료기관에서 제시한 간호 인력 기준보다 더 높은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말기암환자를 효과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는 노인요양제도나 장기요양제도와는 구분되는 독립적인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제도화가 요구된다.

'04년 국립암센터에서 실시한 대국민조사에 의하면 우리 나라 국민의 57.4%가 호스피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었다. 또한 '04년에 실시한 말기암환자 호스피스 시범사업 결과에 의하면,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반적인 치료에 대하여 84% 이상의 환자와 가족들이 만족하였으며,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에 들어오기 전에는 75% 이상의 환자들이 중등도 이상의 통증을 호소하였지만 서비스를 받은 지 1주일 후에는 83.6%에서 양호한 통증관리를 보였었다. 이뿐 아니라 호스피스완화의료 기관의 말기암환자 1인당 의료비용은 은 기존 의료체계에 비해 1년 동안 평균 100~400만원 정도 낮게 소요되었다.

이와 같이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기존의료체계에 비해 경제적이며 만족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필요로 하는 호스피스 완

화의료 병상 2,500여개의 단지 15%(370여병상)만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적인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이정도의 수준을 유지했던 것도, 소수 뜻있는 의료진들과 종교단체에서 헌신적으로 말기암환자분들을 돌보셨기 때문에 가능했었다고 본다. 하지만,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적절한 제도를 마련하지 않고는 더 많은 말기암환자들이 혜택을 보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호스피스 완화의료가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기관을 육성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적인 계획이 필요하며, 전인적인 돌봄에 대한 적절한 재정지원과 수가 개발이 동반되어야 된다. 또한, 의대나 간호대 교과 과정 중에 암성 통증 관리나 완화의료에 대한 교육을 개설하며, 국가고시에 필수 항목으로 포함시켜 기본적인 지식을 지닐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리고, 전문의 수련 과정에 완화의료에 대한 과정을 확대시켜 실제 완화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육성시켜야 한다.

이러한 전반적인 과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지역 중심의 완화의료 기관을 육성하며, 3차 의료기관에 몰려있는 말기암 환자들을 지역 중심의 말기암 환자 전문기관에서 케어를 받도록 유도하는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현재 환자와 가족의 3차 의료기관에 대한 정서적 의존도가 높고, 완화의료에 대한 인지도가 낮으므로, 3차 의료기관에 집중적으로 입원해 있는 말기암환자를 지역의 완화의료기관에 바로 의뢰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3차 의료기관 병원 구역 내에 독립된 완화의료 입원 시설이나 암 환자 완화의료 병동을 확보하여, 3차 의료기관의 급성병실에 입원해 있는 말기암 환자에게 일차적으로 완화의료를 제공하고, 이후 지역의 암 환자 완화의료 기관으로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공보건의료기관(예: 의료원 등)이나 병상이

용률이 낮은 중소병원의 일부 병동을 암환자 완화 의료병동으로 전환하여, 3차 병원 말기암환자의 분산 배치 및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하고, 향후 보건소와 연계해 지역 재가암 환자 관리에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산되어 정책결정에 우선순위로 인정받아 적절한 예산 및 정책지원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일선 기관에 종사하는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널리 알려지기 전에 가까운 친척 중에도 극심한 암성 통증으로 고통받으시다 돌아가신 분이 있다. 그때 호스피스 완화의료 를 통해 적극적인 통증조절과 심리사회적인 지지를 받으셨다면 훨씬 품위있게 생의 마지막을 정리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지 않는 대신에 '의미있고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이다.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의료의 사각지대 속에서 고통 받으면서 방치되고, 도움이 안되는 민간요법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지하는 현실에서 하루빨리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정착되기를 바란다.

독일 어느 마을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목욕 할 수 있는 큰 통이 하나 있는데 통을 한 바퀴 돌리면 그 통 속에 들어 앉은 사람이 젊어 진다고 합니다. 돌리는 횟수 만큼 사람이 점점 젊어 지는 신비스런 통입니다.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오셔서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통을 여러번 돌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통을 돌리는 사람은 할머니에게 "할머니의 소원대로 젊어지기는 하겠습니까만은 다만 지금까지 당신이 살아온 그대로 다시 살게 됩니다." 라고 말하며 서약서에 사인하라고 합니다. 할머니는 가만히 생각을 하더니, 그러면 젊어지는 것을 취소하겠다면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 인터넷발췌 -